

담양형 향촌복지, 사회 참여-경제 자립 일거양득

“고향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생활...어르신 생활 만족도 ↑” “어르신 행복한 삶 살수 있도록 특색있는 복지모델 구축”

담양군이 민선 8기 주요 공약인 신(新) 효도 행정 '향촌복지'를 통해 담양형 복지모델을 구축,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향촌복지는 군민의 32%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인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노인 일자리 확대는 지역사회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이다.

군은 군비 5억5000여만 원을 추가해 현재 열흘이던 공익형 일자리 활동 일수를 12일로 확대하고,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병노 군수는 지난해 취임 첫 업무보고에서 “일방적 지원을 넘어 어르신의 일자리 활동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해결하고 나아가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대부분 교통약자인 점을 고려, 마을 단위 신규사업을 개발하는 등 어르신들의 이동을 최소화한 점도 주효했다.

노인일자리에 참여 중인 한 어르신은 “내가 직접 일을 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돼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동도 할 수 있어 이래저래 좋다”고 말했다.

군은 아울러 ‘담양형 통합돌봄 중기계획’을 수립, 경로당과 요양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고 보건지소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4년간 741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보건지소 기능을 강화한 ‘우리마을 주치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호평 받고 있다. 공중보건과 간호사가 병원 이용이 불편한 가정에 직접 방문해 기본 진찰, 건강 지표 측정과 상담, 치매와 우울 검사 등을 진행하며 맞춤형 운동법을 알려주고 자가관리능력을 키워주는 사업이다.

이밖에 사각지대 독거노인을 자원봉사자와 1대 1로 연결해 정기적인 안부를 확인하는 어르신 지킴이단 확대 운영과 가구별 예·경보 시설 설치 시범사업,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도 주



담양 우리마을 주치의. (사진=담양군 제공)

민 체감형 복지도 각광받고 있다.

이 군수는 “향촌복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노심초사하는 부모의 마음을 달래드리면서 어르신들의 뜻을 받을 수 있는 효도행정의 집

약제”라며 “어르신들이 담양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담양만의 특색있는 복지모델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나주시,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 마을 활성화 워크숍 추진

나주시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 2곳을 대상으로 마을 활성화 워크숍을 추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세지면 죽산마을 주민들과 '내 마을은 내 손으로!'라는 주제로 주민주도 사업에 대한 이해력과 마을 공동체 함양을 위해 진행됐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는 마을 공동체 정신 회복과 활력있는 마을 조성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주민주도로 마을 환경 및 경관을 개선하는 전라남도 시책사업이다.

워크숍은 마을 자원 및 유래 조사, 마을의 제 발길을 위한 이론 및 실습 활동, 사업 추진 관련 토의 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15일 세지면 죽산마을 워크숍을 시작, 22일에는 문평면 동아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차례 더 워크숍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워크숍 진행 시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양성한 마을 디자이너와 공익활동가가 직접 강사 및 퍼실리테이터(조직원이나 프로젝트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촉진자)역할을 수행해 더욱 효율적으로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주=송준표 기자



구례군, 도시재생 '창업(세포마켓) 지원 아카데미' 수료식

구례군은 도시재생 창업(세포마켓) 지원 아카데미 수료식을 6월 14일 구례주조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창업(세포마켓) 지원 아카데미는 구례읍 상권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을 위한 세포마켓을 운영할 예비 창업자를 위해 마련된 교육 과정이다.

교육 내용은 구례읍 도시재생사업의 이해와 세포마켓 운영방안, 사회적경제의 이해와 법인 설립, 창업 이해와 절차, 창업 선진사례 분석, 예비창업 계획서 워크숍, 창업 업종별 전문 코

칭 등이다.

이번 아카데미는 4월 5일부터 6월 14일까지 10회 운영됐고, 총 13명이 아카데미에 참여했다.

교육 수료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창업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세포마켓을 운영 예비 창업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대일 전문가 코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곡성군, '한복 입고 이팔청춘' 생활문화 프로그램

오산면 관음마을 어르신들의 한복 패션쇼 열려

곡성군이 지난 14일 오산면 관음마을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한복 입고 이팔청춘 마을패션쇼'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2020년부터 3년 연속 진행된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사업'을 통해 축적된 한복 자원을 적극 활용한 생활문화 활성화 시범사업과 연계해 실시됐다.

또한 군에서는 마을 패션쇼를 추진하며 주민들이 일상에서 생활 문화를 즐기고, 문화 복지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문화행사에서는 오산면 도담도담마을의 서울 유학생 학부모 6명과 마을청년 활동가들이 한복패션쇼 스템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어르신 메이크업,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하며 지역 어르신과 교류하며 문화 소통의 시간이 되어 더욱 의미있는 행사가 됐다.

어르신들은 마을회관 앞 레드카펫을 거닐며 흥겨운 리듬에 포즈를 취하고 추억으로 남길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졌다.

패션쇼에 참여한 어르신 K씨는 “적절한



마을에서 난생처음 화장해 한복을 입고 레드카펫을 밟아봤다. 젊은 사람들이 도와주면서 사진도 찍어주니 덩달아 젊어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30일에는 고달면 마을회관에서 11개 읍면 생활개선회가 직접 기획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한복 문화체험행사를 추진한다. 또한 곡성군에서는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 일상을 문화로 만드는 생활문화 공동체 활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곡성=양해영 기자

화순군, 하반기 계절 근로 프로그램 참여 농가수시 모집

화순군은 15일 농촌지역의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모집을 진행한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 또는 영농법인, 농업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배 작물 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계절근로자 배정이 가능하다.

고용주로 참여하는 농가는 계절근로자가 거주할 적절한 주거 환경을 갖춘 숙소를 반드시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면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 지급 및 휴식 시간과 휴일 등을 보장하여야만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에 모집된 인원은 7월 말에서 8월 초에 입학하여 최대 8개월 동안 근무가 가능하다.

화순군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번기에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 | | | | | | |
|--------|----------|--------|---------|--------|--------|-------|
| POSCO | 포스코인터내셔널 | 포스코건설 | 포스코케미칼 | 포스코에너지 | 포스코ICT | 포스코광관 |
| 포스코SPS | 포스코엔텍 | 포스코O&M | 포스코기술투자 | 포스코티미남 | 포스코A&C | |